

## 취학전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The Study of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f  
Preschool Childr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of the Mothers

설경옥(Seul, Kyung Ok)\* · 문혁준(Moon, Hyuk Jun)\*\*

본 연구는 부천시와 인천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569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 건강성의 차이 및 관계를 알아보고, 초기경험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인식하여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이고 취업한 어머니이며,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은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의 월소득이 높고 가정환경자극이 풍부하며 어머니의 의사소통 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

\*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mhyukj@unitel.co.kr

## I. 서 론

최근 다양한 이유로 증가되는 가족의 해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란 개인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어은주, 유영주, 1995).

일반적으로 건강의 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한 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로 정의되나(세계 대백과사전, 1990), 가족의 건강성은 그 정의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기능적 가족, 강한 가족, 균형 가족, 정상적인 가족, 최적의 가족, 적합한 가족, 역동적인 가족, 건전 가족 등 다양한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유영주, 2004).

건강한 가족에 대해 Lewis, Beavers, Gossett, Phillips(1976)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여러 자질, 즉 사고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적응능력, 협상능력, 친밀하지만 개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건강한 가족은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서로의 가치체계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DeFrain과 Stinnett(2002)는 헌신, 인정과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정신적인 안녕,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관리 능력을 건강한 가족의 특징으로 보았다. 허봉렬(1996)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란 가족의 공동욕구를 충족시키고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며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가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을 때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면서 관련변인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정의 월소득과 관련하여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윤연정, 이미숙, 2007; 임정아, 이인수, 2006),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의 가족건강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최정혜, 2006). 반면 비록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최경원(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 인식했는데(최정혜, 2004; 홍성례, 유영주, 2000), 특히 가

정의 빈곤은 가정환경의 질과 물리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압박과 고통은 부모의 심리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자녀와의 온정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영애, 서용선, 1983; Brooks-Gunn, Klebanov, & Duncan, 1996). 통계청 자료(2004)에 따르면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으로 나타나 앞으로 취업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은 가족의 건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학전 유아를 둔 어머니의 변인과 가족건강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가정환경은 출생 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차적 환경으로 인간의 초기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손영숙, 1984). 특히 유아기에는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유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에 대해 윤경희(1999)는 정적 환경을 의미하는 지위환경,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심리적, 물리적 변인이 혼합되어 조직화된 동적 환경을 의미하는 과정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loom(1964)은 환경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조건 및 외적자극으로 정의하면서 개체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 비하여 인간의 행동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역설하며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가정은 인간이 가족과 더불어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며 생활환경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유아의 발달과 잠재적인 가능성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초기 경험과 발달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가 인생 초기에 경험하는 물리적인 가정환경 자극은 유아의 지적능력(Bradley & Caldwell, 1976), 언어적 발달(Elardo, Bradley & Caldwell, 1977; Walberg & Marjoribanks, 1973), 학업성취 및 동기화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심리적 가정환경에서 개인의 정서적 기술이 형성된다고 밝혀졌다(Mayer & Salovey, 1997).

따라서 취학전 유아를 둘러싼 가정환경은 유아가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가정환경이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또한 어머니의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는 현상 속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부모 공동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고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머니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부모 공동의 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하므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대해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1977)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인간의 삶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 뿐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Teti와 Gelfand(1991)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며,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Johnston & Mash, 198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학력, 취업유무 등이 있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양육효능감도 높았다(문혁준, 1999; 전은영, 2004). 또한 배우자나 이웃의 사회적 지원(신숙재, 1997),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서소정, 2004; 최형성, 2001) 등의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학력에 따라 각각의 변인 즉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변인간의 관계성을 개별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세 변인 즉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인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환경자극과 양육효능감은 가족건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와 인천시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569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640부를 배부하여 58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1%로 나타났다. 이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중복 응답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569부가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299명(52.5%), 여아 270명(47.5%)이었으며, 유아의 연령은 만5세가 248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만4세가 148명(26.0%), 만6세가 98명(17.2%), 만3세가 75명(13.2%)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출생순위는 둘째 이상이 246명(4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첫째아가 177명(31.1%), 외동아가 145명(25.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4세 이하가 265명(46.6%), 35~39세가 240명(42.2%)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40세 이상이 65명(11.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14명(37.6%), 전문대졸이 184명(32.3%), 대졸이상이 171명(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유무의 경우, 취업모가 198명(34.8%), 비취업모가 371명(65.2%)으로 비취업모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가정의 월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301명(52.9%), 300만원 이상이 268명(47.1%)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을 300만원 기준으로 구분한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학기초에 조사한 '가정환경 실태 조사서'에 기초한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자와 자녀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569)

변 인	구분	N(%)
유 아 성 별	남	299(52.5)
	여	270(47.5)
유 아 연 령	만3세	75(13.2)
	만4세	148(26.0)
	만5세	248(43.6)
	만6세	98(17.2)
출 생 순 위	외동아	145(25.5)
	첫째	177(31.1)
	둘째 이상	246(43.4)
어 머 니 연 령	34세 이하	265(46.6)
	35~39세	240(42.2)
	40세 이상	64(11.2)
어 머 니 교 육 수 준	고졸이하	214(37.6)
	전문대졸	184(32.3)
	대졸이상	171(30.1)
어 머 니 취 업 유 무	유	198(34.8)
	무	371(65.2)
가 정 의 월 소 득	300만원 미만	301(52.9)
	300만원 이상	268(47.1)

## 2. 측정도구

### 1) 가정환경자극(EC-HOME)

가정환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3-6세용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를 김정미와 곽금주(2007a)가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EC-HOME은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로 응답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69으로 나타났다.

###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문헌들(최형성, 정옥분, 2001; Coleman & Karraker, 2003; Teti & Gelfand, 1991)을 기초로 조영숙과 이양희(2007)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

효능감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의사소통 효능감 .79, 교육 효능감 .68, 일반적 효능감 .73, 통제 효능감 .70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총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 3)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건강성 평정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가족원간의 유대 .90,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5,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8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86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의 총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s  $\alpha$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고,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배경변인(어머니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가정환경자극은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F=17.22, p<.001$ ), Schéffe검증 결과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일 경우

가 고졸이하일 때 경우보다 가정환경자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통제 효능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효능감( $F=3.73, p<.05$ ), 교육 효능감( $F=7.68, p<.01$ ), 일반적 효능감( $F=4.03, p<.05$ )과 양육효능감 총점( $F=7.17, p<.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éffe검증 결과 의사소통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양육효능감 총점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고졸이하의 어머니보다는 대졸이상의 어머니들이 의사소통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양육효능감 총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효능감은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대졸이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고졸이하 어머니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들이 교육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 $F=6.60, p<.01$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F=6.99, p<.01$ ),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F=6.43, p<.01$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F=8.11, p<.001$ ), 가족건강성 총점( $F=8.42,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Schéffe검증 결과 가족원간의 유대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집단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가족건강성 총점은 고졸이하 집단·전문대졸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 집단일 경우, 가족원간 의사소통 더 활발하고 가치체계공유를 잘하며 가족원이 높은 문제해결수행능력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변인	교육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F
		(n=214) M(SD)	(n=184) M(SD)	(n=171) M(SD)	
	가정환경자극	.76(.12)a	.82(.09)b	.82(.11)b	17.22***
양육효능감	의사소통 효능감	2.92(.33)a	2.96(.30)ab	3.00(.33)b	3.73*
	교육 효능감	2.64(.46)a	2.75(.36)b	2.80(.39)b	7.68**
	일반적 효능감	2.47(.41)a	2.52(.42)ab	2.59(.43)b	4.03*
	통제 효능감	2.81(.36)	2.87(.39)	2.90(.41)	2.98
	양육효능감(총점)	2.73(.31)a	2.79(.29)ab	2.84(.32)b	7.17**
가족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14(.37)a	3.20(.28)ab	3.27(.37)b	6.60**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04(.36)a	3.07(.29)a	3.17(.38)b	6.99**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09(.39)a	3.08(.34)a	3.21(.38)b	6.43**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78(.39)a	2.81(.32)a	2.93(.43)b	8.11***
	가족건강성(총점)	3.01(.34)a	3.04(.26)a	3.14(.36)b	8.42***

\* $p<.05$ , \*\* $p<.01$ , \*\*\* $p<.001$ (a, 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Schéffe))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효능감에서 취업모(M=3.01, SD=.34)가 비취업모(M=2.93, SD=.31)보다 점수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t=-2.62, p<.01)를 보여주었고, 일반적 효능감에서도 취업주부(M=2.61, SD=.42)가 비취업모(M=2.48, SD=.41)보다 점수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t=-3.54, p<.001)를 나타냈다. 또한 양육효능감 총점에서 취업주부(M=2.83, SD=.32)가 비취업모(M=2.76, SD=.30)보다 점수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t=-2.39, p<.05)를 보여주었다. 한편, 가족건강성에서는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에서 취업주부(M= 3.17, SD=.35)가 전업주부(M=3.09, SD=.38)보다 점수가 높고 유의미한 차이(t=-2.37, p<.05)를 보여주었다. 즉 취업모의 가정에서 비취업모의 가정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이 높으며,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변인	취업유무	유(n=198)	무(n=371)	t
		M(SD)	M(SD)	
	가정환경자극	.80(.11)	.80(.11)	-.30
양 육 효능감	의사소통 효능감	3.01(.34)	2.93(.31)	-2.62**
	교육 효능감	2.75(.41)	2.71(.41)	-1.11
	일반적 효능감	2.61(.42)	2.48(.41)	-3.54***
	통제 효능감	2.87(.40)	2.85(.37)	-.73
	양육효능감(총점)	2.83(.32)	2.76(.30)	-2.39*
가 족 건강성	가족원간의 유대	3.22(.32)	3.18(.36)	-1.03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13(.35)	3.07(.34)	-1.80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17(.35)	3.09(.38)	-2.3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85(.40)	2.83(.38)	-.74
	가족건강성(총점)	3.09(.32)	3.04(.33)	-1.53

\*p<.05, \*\*p<.01, \*\*\*p<.001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정환경자극에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정(M=.82, SD=.10)이 300만원 미만의 가정(M=.77, SD=.12)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5.38, p<.001)를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차이를 보면, 의사소통 효능감에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M=3.04, SD=.34)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M=2.89, SD=.2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효능감에서도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M=2.80, SD=.44)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M=2.66, SD=.3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효능감에서도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M=2.59, SD=.44)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M=2.46, SD=.3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 효능감에서도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M=2.93, SD=.41)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M=2.79, SD=.3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효능감 총점에서도 나타나,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어머니(M=2.86, SD=.33)가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어머니(M=2.72, SD=.27)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가정의 월소득이 높은 가정이 의사소통 효능감, 교육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통제 효능감 및 양육효능감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 ( $t=-5.34, p<.001$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t=-6.05, p<.001$ ),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t=-4.88, p<.001$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t=-5.56, p<.001$ ), 가족건강성 총점( $t=-6.11,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가정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더 잘 하며, 가족원이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를 잘하며 가족건강성 총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차이

		월소득		t
		300만원 미만 (n=301)	300만원 이상 (n=268)	
		M(SD)	M(SD)	
양 육 효 능 감	가정환경자극	.77(.12)	.82(.10)	-5.38***
	의사소통 효능감	2.89(.28)	3.04(.34)	-5.59***
	교육 효능감	2.66(.37)	2.80(.44)	-4.16***
	일반적 효능감	2.46(.39)	2.59(.44)	-3.55***
	통제 효능감	2.79(.35)	2.93(.41)	-4.31***
	양육효능감(총점)	2.72(.27)	2.86(.33)	-5.48***
가 족 건 강 성	가족원간의 유대	3.12(.31)	3.28(.37)	-5.3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01(.31)	3.18(.36)	-6.05***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3.05(.35)	3.20(.38)	-4.88***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2.75(.35)	2.93(.40)	-5.56***
	가족건강성(총점)	2.98(.29)	3.15(.35)	-6.11***

\*\*\* $p<.001$

## 2.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가정환경자극과 가족건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5와 같다.

가정환경자극은 가족원간의 유대( $r=.43, p<.001$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r=.42, p<.001$ ),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r=.35, p<.001$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r=.37, p<.001$ ), 가족건강성 총점( $r=.49, p<.001$ )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정환경자극이 많을수록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가족원이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를 잘하며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건강성 전체와 양육효능감 전체의 상관은 .62로 정적상관을 보였다. 특히 양육효능감 총점과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는 가족건강성 총점( $r=.61, p<.001$ ), 가족원간의 유대( $r=.60, p<.001$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r=.58, p<.001$ ),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r=.54, p<.001$ ),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 $r=.49, p<.001$ )순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효능감이 높고 교육효능감과 일반적 효능감, 통제 효능감이 높고 양육효능감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를 잘하며 가족원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높고 가족건강성 총점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5.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가정환경 자 극	의사소통 효 능 감	교 육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통 제 효능감	양육효능감 (총점)
가 족 원 간 의 유	.43***	.60***	.43***	.40***	.40***	.57***
가 족 원 간 의 의 사 소 통	.42***	.58***	.44***	.41***	.42***	.58***
가 족 원 의 문 제 해 결 수 행 능 력	.35***	.49***	.37***	.33***	.37***	.48***
가 족 원 간 의 가 치 체 계 공 유	.37***	.54***	.52***	.41***	.38***	.58***
가족건강성(총점)	.49***	.61***	.49***	.43***	.44***	.62***

\*\*\* $p<.001$

### 3.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정의 월소득)과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이 가족건강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VIF 10이하(1.05~1.69) TOL 0.1이상(.50~.87)의 값을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본 가정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72~1.90으로 나타나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에 대한 기본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6과 같다. 가정의 월소득( $\beta=.08, p<.05$ ), 가정환경자극( $\beta=.10, p<.01$ ), 양육효능감( $\beta=.45, p<.001$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 중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44%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월소득이 높고 가정환경자극이 높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6. 가족건강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가족건강성	
	B	$\beta$
어머니 교육수준	.02	.04
어머니 취업유무	-.01	-.02
가정의 월소득	.06	.08*
가정환경자극	.29	.10**
양육효능감	.46	.45***
상수		.93
F값		54.75***
R <sup>2</sup>		.44

\*p<.05, \*\*p<.01,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만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의 차이 및 관계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환경자극이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김정미, 곽금주, 2007a; 장영애, 서용선, 1983; 한찬희, 2006),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결과(안선희, 김선영, 2004; 정혜인, 2002)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강희경, 2005; 윤연정, 이미숙, 2007; 임정아, 이인수, 2006)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 가정에서 자녀의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환경을 마련하며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효능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유아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기관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취업모들이 비취업모보다 의사소통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에서도 취업모 가정의 문제해결수행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교사들과 관련된 연구(최정혜, 2006)에서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시간적, 체력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가족생활이 조금 불안정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의의가 있다. 또한 전체 여성취업자 중 78%가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유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을 가지는 것이 양육효능감 및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가정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가족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층과 관련된 중단연구(김정미, 곽금주, 2007b)에서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가정환경자극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최정혜, 2004; 홍성례, 유영주,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양육효능감은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며(서소정, 2004), 가정의 경제수준을 높이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보고(강희경, 2005; 윤연정, 이미숙, 2007; 임정아, 이인수, 2006)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양육과 교육에 대해 가정이 경제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 도의 자치단체의 무상 보육 및 교

육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환경자극과 양육효능감은 가족건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양육효능감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성 연구(정혜인, 2003)에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 집단의 유아보다 낮은 집단의 유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다. 즉 가정에서 질적으로 풍부한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부모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유아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환경자극,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월소득,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은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 중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의 월소득이나 가정환경자극도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가 협력하여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가족관계가 가장 정확하다는 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한 비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천시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서울이나 강원 등 다양한 지역적에 거주하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가족건강성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수집 방법과 더불어 가정환경자극, 양육효능감 변화를 측정하고 질적 분석을 해봄으로써 효과적인 가족건강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 고 문 헌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김정미, 곽금주(2007a).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 김정미, 곽금주(2007b). 취학전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 가정환경자극,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탐색, **아동학회지**, 28(4), 305-317.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세계대백과사전(1990). 서울: 두산.
- 손영숙(1984). 영·유아의 양육책임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청구.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어은주,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유영주(199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정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3.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제16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5-42.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경희(1999). 가정환경과 지능발달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연정, 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임정아(2005).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아, 이인수(2006).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연구. *유아교육*, 15(2), 37-62.
- 장영애,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와 학령전 아동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0.
-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경원(2010).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 최정혜(2006).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8(3), 163-173.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통계청(2004). <http://www.nso.go.kr>
- 한찬희(2006). 만2세 영아의 문해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가정문해 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봉렬(1997). 건강가족실천운동의 방향과 과제. *건강가족상정립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 홍성례, 유영주(2000). 남편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4(1), 1-17.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Springer-Verlag.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76).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mental test performance at fifty-four months: A follow-Up study. *Child Development*, 47, 1172-1174.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DeFrain, J., & Stinnett, N. (2002). Family strengths. In J. J. Ponzetti et al.(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2nd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Group.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 M. (1977).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8, 595-603.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75-197.
-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V. A. (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istems*. NewYork: Brunner/ Mazel, Inc.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 Teti, D, M., & Gelfand, D. H.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alberg, H., & Marjoribanks, K. (1973). Differential Mental Abilities and Home Environment: A Canon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63-36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Participants consisted of 569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cheon and Buchon Province.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Scale,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Health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the mother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mily healths according to mothers' employment, income, Mothers' education level predict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family health.

**Key Word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parenting self-efficacy,  
family health